

용담댐관련대청호맑은물확보를위한결의(안)

의 번	안 호	제350호
--------	--------	-------

제안년월일 : 2000년 10월 26

제 안 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주 문

-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촉구해온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대책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전북 진안군에 건설중인 용담댐의 담수시기가 금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충청권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수질악화 및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 충청북도의회는 대청호의 맑은물 확보를 위한 제안사항이 선결되기 전에는 용담댐의 담수를 중지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전북 진안군 용담면에 위치한 용담댐 건설이 1990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고, 담수시기가 2000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 공사착공전부터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의회가 용담댐 건설과 관련하여 대청호의 수질악화를 우려한 맑은물 확보대책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촉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 한국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에서는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 대청호의 수질악화 및 주변환경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현실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음.

용담댐관련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결의(안)

충청북도의회는 용담댐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에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촉구하여 왔음에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북 진안군에 건설중인 용담댐의 담수시기가 금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음에 직면하여, 대청호의 수질악화 및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음제안에 대한 선결이전에는 용담댐의 담수를 중지할 것을 결의함.

첫째 : 전주천에 공급하는 생·공업용수를 제외한 잔여 수량은 대청호로 방류하여 하천유지용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용수배분을 재조정 할 것

둘째 : 용담댐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속히 지정하여 맑은물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함께 담수지역내 오염원의 완벽한 제거로 하류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셋째 : 용담댐발전으로 인한 수익금은 댐 상·하류지역의
수질개선 비용으로 재투자 할 것

넷째 : 댐건설로 인한 대청호 및 주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담수의 조건에 포함시킬 것

이상과 같은 제안이 선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용담댐담수는
충청북도는 물론 대전시, 충청남도 400만 주민의 젖줄인
대청호를 지키고 보존할 수 없을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함.

2000년 10월 2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